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위용의 기상을 만방에 펼치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한

민족사적경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8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출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글발이 써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해방업적, 조국건설업적을 만년제보로 틀어쥐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70

돌진 행

조국해방 70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 있는 천만군민은 온 거래가 해방의 감격과 환희로 삼천리강산을 전 간직시켰던 그날로부터 70년이 되는 역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전쟁사상 뿐만아니라 세계평화를 드리고 있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조국해방의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奔지고 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민족해방, 조국해방의 날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잊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주체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펼쳐 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조국해방의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奔지고 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민족해방, 조국

해방의 날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은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국해방 70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 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밝내에 빛내여 나가자!》,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 일흔돐 만세!》,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여 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혁명렬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 헌신자,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 조국에 온 새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국해방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평의회대표단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조선해방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평의회대표단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봉동지, 최애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현석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법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학자들이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자!를 했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연대기우에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승리와 번영을 아로새기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의 노래》를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역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자!》를 하였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연대기우에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승리와 번영을 아로새기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뿐진각하

나는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인민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류체없이 간고하였던 항일대전의 공통투쟁속에서 마련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광고하였습니다.

나는 뜻깊은 울음을 이로조선인의 해가 선포되고 두 나라사이에 최고위급에서의 편계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고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주제 104(2015)년 8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 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명절을 맞으며 우리는 70년전 귀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죽변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춘엄한 날에 마련된 친선과 협조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선린관계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기타 분야들에서 호혜적인 쌍무동반자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보장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웨. 뿐진각하

2015년 8월 15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기념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무관단이 14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끝까지 꽂았습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말꽃바구니가 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습니다.

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집행위원회에서 보내온 꽃바구니가 전정되었습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유엔개발계획 대표부에서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다카사가 꽃바구니를, 웨남친선조직들의 편집회에서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민방에 펼쳐지고 겨례의 자주통일열망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다합함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전대미문의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고시여 조국해방의 혁사적대업을 더욱 하시고 백두산대국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친挚히 빛내여 나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상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안아오신 8.15해방은 어들린 삼천리강토에 민족재생의 새 아침을 불러오고 조국과 겨례의 운명개척에서 본격적전쟁을 가져온 혁사적사변이었습니다.

조종의 산맥두산에서 선군의 총대, 조국해방의 희불을 높이 추켜들고 황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여 조국해방 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이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막고의 전설적영웅, 천하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인류역사의 네대기에는 명인과 명장들에 대하여 수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위대한 주석님과 같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만난시련을 이겨내시며 피어린 투쟁으로 민중의 자유와 행복, 민족의 자주적운명과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그처럼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강도 일제의 총칼이며 비참한 노예의 유풍을 강요당했지만 우리 겨례를 구원하시려 백두산의 장군별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신술귀를, 승진입지하는 천번만회의 혈황한 전법과 민족의 힘과 지혜를 능숙하게 조직통일하는 비범한 평도제를 보여주신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100만대군을 멀망시키고 조국해방의 혁사적사변을 안아오시았습니다.

드넓은 배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강줄기마다 피어린 자육자육을 날지시며 항일혁명 20년을 불멸의 영용서사시로 아로새기신 위대한 주석님의 전설적인 행로가 있어 민족수난의 암흑시대는 영영 물장나고 우리 겨례는 망국민의 섬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8. 15해방과 더불어 삼천리강토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과 『조선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끝이났으며 겨례모두가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걱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 만난시련이 가로막아나서고 천지풍파가 닥쳐온데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원수님의 선군형도를 충정일심으로 짜이워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배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숭고한 뜻이 절약된 조국통일 3대현장과 6. 15공통선언, 10. 4선언을 불변의 자주통일로 추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가치파라 조국통일의 더불어 힘을 더워주기 위한 투쟁에 온 국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심전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반제민족을 사상과 행동의 전길성과 통일성이 보장된 강철의 전위대로 더욱 밝갈같이 더디며 죽이지 않고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자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미국과 그 후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주주,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며 날로 광복회되는 피뢰수당국의 모략적인 반공화국『인권』제결소동파 해소동, 포악무도한 파쑈란압적통을 키태부서버리기 위한 벽력운동을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반통일세력이 발악하고 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천출위인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필승불패의 선군령도가 있고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겨례의 충정과 통일에 국의 의지가 있기에 자주, 민주, 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민중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선대수령분들의 위업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하는 조국의 해방과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이룩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민중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후손만대에 걸이걸이 전해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과 조국통일영도 업적은 또한 한분의 천재제일위인인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데려주시고 공화국을 불폐의 정지군사강국, 해보유국으로 일폐세우시었으며 혁사적인 6. 15공통선언과 10. 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삼천리조국땅에 우리 민족끼리 가치지아래 전진하는 16. 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었습니다.

가장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 힘, 탁월하고 비범한 평도리력을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님원을 현실로 꽂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온 겨례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미국과 그 후종세력의 해소동과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었습니다. 겨파분해하고 북의 국력과 민족의 위상을 만방에 펼쳐시며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민족의 절절한 통일원원을 한 몸에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허용할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완성과 통일강국건설의 청사진을 뚜렷이 밝혀주었습니다.

비범한 에지와 애국에 죽의 대용단으로 온 민족, 온 겨례를 통해 국제에로 불러일으키면서 광활한 영토와 공장, 토목과 통관등도 통로들이 부르는 해방의 만세소리로 뒤흔들리고 감격과 기쁨에 넘친 통로를 행진대열이 일본땅을 누비고 또 누비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장장 70년세월이 흘렀을 이 시각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아버님의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힘을 토대하여 항일유격전쟁을 치거하시여 강도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을 되찾아주신 8월 15일은 온 겨례에 더불어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얼마나 중대한 혁사적사변이였는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명시하시고 현대역사를 자주의 궤도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사상자론가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일군들과 통로들의 정신력을 날동시키기 위한 선교양교사업을 더욱 전진적으로 벌렸으며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불懈성과 충렬에 국위업적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애족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억새끼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증조직으로 애족애국의 민족정신을 굳건히 다지고 통로들의 생활상원의 힘으로 올려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통로되찾기 운동으로 총련의 주체적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힘에 힘을 빙어하는 청세와 일본당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선결과업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일군들과 통로들의 정신력을 날동시키기 위한 선교양교사업을 더욱 전진적으로 벌렸으며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불懈성과 충렬에 국위업적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애족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억새끼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생활상원의 힘으로 올려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통로되찾기 운동으로 총련의 주체적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정기획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청세와 일본당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선결과업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둘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정기획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청세와 일본당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선결과업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둘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정기획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청세와 일본당국의 차별책 등에서 세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선결과업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둘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시장에 맞게 주체적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조국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삼천리 강토에 차고 넘쳤던 1945년 8월 15일, 역사의 그 날로부터 어언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거에는 또렷한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가 경탄하는 강대한 자주의 나라, 위대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높이 펼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자 하는 경에 하는 김정은 통치의 현명한 행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불같은 결의에 넘쳐섰다.

역사에는 위인들과 명도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에 국애족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세월의 만고봉상을 다 겪으시며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며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온 거예의 다함없는 신뢰와 칭송을 받으시는 전설적위인은 동서고금에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해방 일흔을 즐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을 후손만대에 걸쳐 전하는 온 거예의 한결 같은 지향과 염원을 담아 이 비단록을 발표한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을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성상에 걸치는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빠져간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생계의 새봄을 안아오신 해방의 은인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은인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세기 초였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일제에게 국권을 통제로 강탈당하고 자기의 걸에 끌어세우시는 강그리 빠져간 식민지조선은 살아도 숨쉴수 없고 죽어서도 물질 못 없는 말그대로 중세기적 암흑천지,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지옥이었다.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3.1인민봉기로 일제에게 항거도 해보고 회초지망은 국내 각지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던 만주와 일본의 곳곳에까지 절벽에 끌려나갔으며 여기에는 대통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 전설들이 끊임없이 떠나고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의 인장까지 서슴없이 내놓은 것도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의 은인에 대한 다합없는 감사와 신뢰의 표시였다.

지금 조선인민들은 『상해립정의 법통』이나 뛰어난 저들의 그 무슨 『정통성』에 대해 떠들며 가소롭게 놀아대고 있다.

그것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의미를

외포하고 짜증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편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를

맡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끌어세우시는 한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 이어 달리 기대럴 판문점 도착, 결의 모임 진행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뿌리내린 혁양의 성산 백두산에 출발한 통서해지구 불은기이어달리기 대열들이 13일 분제연선도시 개성에 도착하였다.
인민군인들은 먼저 개성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꽂아놓았으며 근위부대원들이 구나와 꽂아놓았던 꽃다발들을 친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양기를 대오앞에 모시고 백두산 혁명장군의 무적의 기상을 떠올리며 힘차게 행군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시안의 군로자들과 함께 청소년 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날 인민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드리게 이로써 거쳐지는 대역산초소를 들여보았으며 근위부대원들이 훈장과 훈장처버리고 영원한 승리의 훈장을 받았다.

14일 인민군인들은 판문점에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 편비 앞에서 그들은 나라의 풍물과 함께 온갖 풍물과 함께 청소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기념드록 함께 기념하였다.
그들은 판문점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미제가 지난날의 수치를 막각하고 또다시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끝내기로 도장을 찍을 놓도 없이 모조리 죽랑처버리고 영원한 승리의 훈장을 받았다.

7. 27을 안아오고야말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이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험월성 조선인민군 육군중장,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혁양상을 찾은 조국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신 것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

사와 전통을 민족민대에 굳건히 이어주신 불멸의 업적으로 친환경을 빛나고 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세월은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두의 천 출위인 이 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도 즐기자에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준엄한 날이나 평범한 날이나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받들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전쟁로병들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강직하고 견실한 종래동지, 종대전우가 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시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파업을 절저히 관찰하며 빨간색식후원열풍을 세 차례 일으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 전략적슬파 영웅용 투정정신, 백발백진의 사격술과 무쇠 같은 체력을 지닌 진짜배기 쌔움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 아들이고 말하였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경애하는 민족군인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배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세세방법에 떨쳐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천운위인상을 더욱 가슴드롭게 절감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계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신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훌륭히 무기로 펼쳐주고자 우리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교자는 천체 인민군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운 혁명의 불을 끊임없이 훌륭히 전개하는 기운으로 김정일통지와 함께 올인으로 성장하여 벌여 모든 군인들이 백두의 넓과 기상으로 심장의 불은 피어나고 애국의 땅방울로 가슴을 적시며 훌륭하고 또 훌륭하여 그들 모두를 조국이 알고 당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선군시대의 훈련영웅으로 키울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청년일군들은 군인애족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환선식정치 사업과 투철정신, 백발백진의 사격술과 무쇠 같은 체력을 지닌 진짜배기 쌔움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 아들이고 말하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통지와 김정일통지의 반체전승정책을 통해 더 옥빛나라 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통지에 투철정신을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불리는 맹세를 다지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통지와 김정일통지의 반체전승정책을 통해 더 옥빛나라 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통지에 투철정신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꽂듯이 이어가자!』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맹목되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세울 것이다』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북도발》을 떠들어 댈 수록 차례질 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습 범이라는 오명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일대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폐허현병초소주변에서 원인모를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군인들도 폭발장을 목격하였다.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남측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별로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뢰발』이라고 해도 파언이 아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화재나 폭우 등의 각종 리포지 폭발이 떨어져 있다.

이번 사건 남측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140여 밤의 지뢰가 터진지도 불과 열흘의 일이다.

그러나 『지뢰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며 폐허군부가 떠들고 폐허함으로 부가 제쳐놓고 청와대가 악청을 들고나온다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조건에 서 그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폐허들은 사건발생 초기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현병초소주변에 매설해 놓은 수

지반보병지뢰 『M-14』가 강한 폭우에 폐허

터려놓은 것인 줄이었고 공개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일 8도짜이 떨어놓은 기자회견에 나타난 김민석이라는 놈은 폐허국방부 대변인이 활시고 이번 『지뢰폭발』사건은 『북국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폭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원래 제주도도 있고 소갈미리없이 놀아

대여 베트남 헌팅족이 아니 달리 될 수 없

는 것이다.

이어 폐허함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밀도 끝도 없이 무력대고 『대북경고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인 즉 폐허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현지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뢰폭발이 『북도발』로 판명되었으며 때문

에 우려되며 『사파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을 요구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판은 『한미합동조사단』 단장이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판명하는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특유의 우거져 판촉이 아주 제한된다는 것, 사건발생장소가 기이에 인민군 측 초소가 있다는 것, 현장에서 폭발된 지뢰 용수철 3개가 발견되었다는 것, 나무조각에서 송진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 금방 매설한 지뢰라는 것, 따라서 이것이 『북도발』의 『증거』로 뒤지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되었다.

폐허들은 아무래도 『북도발』주장이 파장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추정된다』, 『확실시 된다』는 식으로 엄마무했다.

일반적으로 반보병지뢰는 자기 측 방어구 역에 설치하는 것이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군사분계선 남쪽 400m 지점에 있는 폐허

현병초소앞에 우리가 자기 방어를 위해 그

것도 3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회력수단을 펴용하였지 3발의 지뢰파워나 주물려냈겠는가.

처풀한 사용자는 한 훈도도 없을 것이다.

우리 역시 대용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이어서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폐허들이 『경정적 물증』으로 어려

가지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구실로 북남

관계전반을 더욱 확화시키고 있는 것만큼 그

에 대하여 론의해보기로 하였다.

폐허들은 『북도발』의 첫째 『증거』로 수거

된 폭함지뢰에 대한 보증을 날조해낸 것이다.

이런 폐허들은 『북도발』로 떠드는

것은 미물같은 짐승도 낮을 불길 것이다.

폐허들이 『물증』이라고 우겨낸 3개의

『생생한 용수철』도 그러하다.

총발된 지뢰의 용수철이라면 적어도 부

여기거나 휘어져있어야 하는 정상일 것이다.

더우기 폐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M-

14』지뢰보다 아군지뢰의 폭발력이 몇 배 더

강하다면 텐진 용수철은 아무도 없을 듯

이 생생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어 저려하게 드러난 용수철은 군사분계

선일대에 수없이 널려져있다.

하기 『천안』호의 선체를 두통강겼다는

『어피추진체』를 조선동해에서 견저다가 『물

어야 했겠는가.

초보적인 군사상식도 없는 것은 둘째치고 폐허군부는 폭발된 지뢰가 수지라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이미 발표한 것마저 감각

있어 베어린 것 같다.

폭발로 산산이 부서지고 타버린 잔해에서

념새를 찾는다면 회악봉세일 것이다.

도발에 환장이 되면 수지와 나무도 제대

로 가려보지도 못하고 있는 념새도 착상해

내는 미련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충진냄새』가 나면 모두 북의 것이라는 창

당구에 한 번더 암말로 모락에 이물이 난 박

근혜식 판단법이 하지 않을 수 없다.

폐허들은 『북도발』을 펼칠 증거를 위해

바다에서 폐허군함선이 침몰해도 『북

미군이 문이 하늘에서 정체 분명의 무인기인

『남북불가침 합의』에 대한 일종한 도전』

이니 하며 왜가리청을 돌구어렸다.

따라서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침입

하여 매설한 『의도적인 지뢰공격』이라고 헛

설해했다.

폐허들이 놓은 것은 끝이었다.

원래 남조선피뢰당국은 제 집안에서 무슨

불상사가 터지면 무ตร대고 우리를 걸고드

는 악습으로 완전히 세질화되어 있다.

바다에서 폐허군함선이 침몰해도 『북

미군이 문이 하늘에서 정체 분명의 무인기인

『남북불가침 합의』에 대한 주어온 위험문제

이니 하며 왜가리청을 돌구어렸다.

이것은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상전과 주

구가 합작하여 꾸며낸 모략과 이는 것을 제

스스로 드러내보였을 뿐이다.

남조선피뢰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의 하나 우리 군대

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쳤다면 그

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

겨울 쟁인가.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도우네 고싶으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통

영상상을 제시하라.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북도발』을 입밖

에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을 군사적으로, 과학

기술적으로 깨닫는데 하늘에서 풍성하고

활기찬 『전쟁』이 원존하고 있다.

황당무게 한 『북도발』을 떠들어 끌수록 박

근혜일당에 차례질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

습이라는 오명뿐이다.

우리 군대와 민족은 무모하게 번져지는

도발자들의 새로운 대결판을 예리하게 주

시하고 있다.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용당한 징벌을 초

래 할 것이다.

리에 이어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물이을 거센 비난을 수습해 보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가소롭게도 폐허들은 공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흥미로운 미명밀에 우리를 대화마당에 끌어들이려는 고약한 속내도 추구하였다.

주구의 서풀짜리 팔대 놀음에 합세하여 미국상전이 늘어난 흐트러니 또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지뢰폭발』사건의 『북도발』타령이 올려 나오기 바쁘게 『유엔군사령부』의 탈을 쓴 미국놈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나타나 학살기를 들고 그 무슨 『정경현정위반』이니, 『남북불가침 합의』에 대한 일종한 도전』이니 하며 왜가리청을 돌구어렸다.

이것은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상전과 주구가 합작하여 꾸며낸 모략과 이는 것을 제스로 드러내보였을 뿐이다.

남조선피뢰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의 하나 우리 군대

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쳤다면 그 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

겨울 쟁인가.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도우네 고싶으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통

영상상을 제시하라.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북도발』을 입밖

에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을 군사적으로, 과학

기술적으로 깨닫는데 하늘에서 풍성하고

활기찬 『전쟁』이 원존하고 있다.

황당무게 한 『북도발』을 떠들어 끌수록 박

근혜일당에 차례질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

습이라는 오명뿐이다.

우리 군대와 민족은 무모하게 번져지는

도발자들의 새로운 대결판을 예리하게 주

시하고 있다.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용당한 징벌을 초

래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군사적으로 『지뢰폭발』을

증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군사적으로 『지뢰폭발』을